승보공양제일, 해인사 수닷타들



해인사 승가대학(강원) 후원회는 매월 첫주 토요일 일요일 정기법회를 열고 있다. 후원회는 승보공양을 위해 각지에서 모인 재가자들의 모임으로 공부하는 해인사 스님들을 돕기 위한 모임이다.

道伴의 향기 해인사 승가대학(강원) 후원회

승보공양, 후원회 인연

2015년 최현철 회장 입회

SNS 밴드 이용 홍보 가입

현재 회원수 700여 명

매월 첫 주말 정기법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처님 당시, 부호 수닷타(급고독장자 · 給孤獨長者)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곧바로 불법(佛法)에 귀의한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부처님을 위한 불사에 미련 없이 회향한다. 그는 기원정사를 지어 부처님을 모시고 그 가르침을 늘 가까이 한다. 사업가였던 수닷타가 자신의 모든 재물을 미련 없이 부처님을 위해 쓸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을 공양한다는 것은 그렇게 그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따른다는 뜻이다. 부처님의 현신을 볼 수 없는 오늘에서 우리가 수닷타가 될 수 있는 길은 아마도 승보를 공양하는 일일 것이다. 수닷타의 마음으로 승보공양의 공덕을 쌓고 있는 인연들이 있다. '해인사 승가대학(강원) 후원회(이하 후원회)'이다. 후원회는 승보공양을 위해 각지에서 모인 재가자들의 모임으로 공부하는 해인사 스님들을 돕기 위한 모임이다. 회원들 각자의 이름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해인사의 수닷타'들을 만났다.

후원회의 시작

후원회는 해인사 강원 57기 스님들로부터 비롯됐다. 스님들을 돕는 후원회가 스님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여러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지금의 후원회를 이끌고 있는 최현철(58) 회장과 배명숙(58) 홍보팀장은 2015년 초 도반들과 해인사를 찾았다가 스님들(57기)이 직접 후원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현철 회장과 배명숙 홍보팀장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본인들의 후원을 본인들이 모색하고 있는 것이었다. 얼마나 급한 상황이면 본인들이 본인들의 일을 모색하게 되었을까. 강원 스님들의 열악한 면학환경에 대해 알게 된 최 회장과 배 팀장은 망설일 것도 생각할 것도 없었다. 부부인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도반들과 후원회에 가입하고, 후원회에 대한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최 회장과 배 팀장은 도반들과 6월 어느 날, 여름템플스테이를 위해 해인사를 찾았다가 법회에 참석한다. 당시 법회에는 5명의 강원 후원회 회원이 참석하고 있었다.

"저희가 참석하니 11명이 됐어요. 정식 법회를 시작한 건 그 해 4월로 알고 있는데 두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르스 때문에 취소 됐다가 저희가 나타난 거죠"

최 회장은 그 때 스님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됐고, 후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됐다.

"당시 스님들의 용체가 10만원도 안 됐어요. 휴대폰 요금을 내고 나면 책 한 권 사 읽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어요. 아프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죠. 병원 치료 한 번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학인 스님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재가자로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때부터 최 회장과 배 팀장, 그리고 도반들은 다른 도반들에게 강원 스님들의 상황과 후원회의 필요성을 알리고 후원회 가입을 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인사를 찾는 불자들에게 후원회의 필요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현재 후원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훈(58 · 김해) 씨도 해인사 법회에 참석했다가 후원회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

"처음 강원 스님들에 대해 들었을 때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한 번 마음 편하게 갈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지금은 가족들이 모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불교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 회장과 배 팀장은 1년 정도 지나 임원진을 구성할 필요성을 느꼈고 실무진을 구성해 추진력 있는 홍보 방안을 찾았다.

우선 우편 홍보물을 없애고 SNS 밴드를 이용해 손 쉬운 접근법을 활용했다. 매월 첫 주에는 정기법회를 열어 일반 불자들이 편하게 해인사를 찾도록 유도했다. 점차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현재 밴드에는 743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후원회는 후원 계좌를 두 개로 나누어 운영한다. 하나는 회원들이 고정적으로 학사 과정을 위한 지원금 계좌이고, 또 하나는 노트북 기부 등 특별활동을 위한 보시금 계좌다. 지난 6월까지 약 1억 원의 후원금이 적립됐다.

"매월 재정을 정리하며 보시하는 분들의 명단을 보고 또 봅니다. 그 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그 분들의 마음에 깊은 감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 후원금을 위해 밴드에 글을 올릴 때 마다 제 신행도 굳건해집니다. 급히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 반신반의하며 글을 올리는데 놀랍게도 후원금이 채워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해인사 수닷타들을 만나다

홍류동 계곡을 지나 팔만대장경을 모신 해인사로 오른다. 구광루에서 법회가 시작됐다. 80여 명의 대중이 회색 바탕에 갈색 띠를 두른 조끼를 입고 앉아 있다. 조끼에는 해인도(海印圖)가 가슴 중앙 부분에 찍혀있다. 해인도는 바다에 삼라만상이 도장을 찍은 듯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법계도(法界圖)라고도 불린다. 법계도는 〈화엄경〉의 법성게를 담고 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오셋타이 공덕과 행복

B5
문화
천태종, '법화광명의 노래' 음악회

B6
학술
이진구의 〈한국 근현대사와 종교자유〉